

사건 일시	사건 인물 및 대화	사 건 내 용
7월 15일	한덕수	국방장관에게 군부대가 구조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시 (예천 주민 2명 실종)
7월 17일 10시00분	제2작전사령부, 합동참모부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복구작전 수행 해병대1사단장이 아닌 육군50사단장이 해병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해서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실종자 수색 작전을 통제 그 취지는 육군50사단의 작전지역임 참고로 신속기동부대는 새로운 여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전에 참여하는 여단을 지칭하는 것임
7월 17일 10시40분	포7대대장과 7여단작전과장 통화	대대장: 대대장님 회의 끝났고, 여단장님 말씀은 오후에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차량하고, 개인 사품, 물자 다 세팅하라...
7월 17일 21시 50분	임성근 사단장 단편 명령	포병여단은 제2신속기동부대 후속하여 작전지역 출동, 호우피해 복구 작전 시행
	포7대대장 피의자 진술조사 중	호우피해복구작전은 대민 지원 차원에서 파손된 가옥에 대한 쓰레기 처리라든지 흙탕물을 제거하는 작업, 출동장비와 물자는 삼, 마대 장급 그리고 갈퀴 수중 수색을 하는 부대는 따로 존재하며 포병 부대는 이와 다름
7월 17일 22시 11분	포11대대장 문자	사단장 강조사항: 복장통일철저(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체육복, 정찰모 체육모 절대 안됨, 컴뱃셔츠 안됨) 사단장 현장 지도시 복장점검 예정 7월 18일 05시 00분 도착 준수
7월 18일 06시 20분경	포7대대장 문자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7월 18일 06시 20분경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 통화	11대대장: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7대대장: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11대대장: 하하 참나 7대대장: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정철할 수 있을거 같고 11대대장: 와 이거이거 7대대장: 위험합니다. 11대대장: 어 내가 우선 7여단장이라 통화해 볼게 7대대장: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7월 18일 06시 52분경	포 11대대장 문자	7여단장 지시: 하천 수변 정찰시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것, 특히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위주로 할 것
7월 18일 09시 00분경		내성천 별방교: 임성근 포 3대대 현장 지도 포3대대 9중대장 진술: 임성근이 현장 확인도 안 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지시
7월 18일 15시 경	포7대대장과 7여단작전과장 통화	대대장: 야 지금(비가) 너무 많이 와 작전과장: 근데 지금, 지금 아직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 께서 옆에 계시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 인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장님 께서 대대장: 알았어 (육군은 이미 철수함)
7월 18일 15시 경	포7대대장과 7여단장	대대장: 대대장입니다. 여단장: 아 그쪽에 상황이 지금 어떠냐 대대장: 내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단장장: 그렇게 해라, 이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7월 18일 16시 20분	포11대대장 (현장지휘관 카톡방)	사단장 지시사항(요약본) ... 3.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 4. ... 4인1조로 책임지고 찢러가며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임) 5. 군기본자세 유지 철저(특히, 방송차량이 울시)
7월 18일 16시 38분	포11대대장 (현장지휘관 카톡방)	놀러온 것 아니다 똑바로 군인의 본분 다할 것 이상 사단장님 지시 중 전 전화와서 엄청 강조함 지금 사단장님 전화지시중
	포11대대장 진술	7월 18일 16시에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여단장이 사단장의 전화를 받고 정황을 옆에서 보았다는 진술
7월 19일 06시 20분경 (실종사고 2시간전)	포7대대장과 7여단장	내성천: 비는 그쳤지만, 물살 수위는 강함 여단장: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대대장: 그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단장: 간방교, 알았다. (사단장 방문) 시간이 9시.. 10시 정도 될 것야

사건 일시	사건 인물 및 대화	사 건 내 용
7월 19일 07시 04분	임성근 카톡을 발송	부하들(포3대대 9중대)이 허벅지 정도까지 무릎 이상으로 입수한 상태에서 지금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는 작전 사진(국민일보 사진)에 대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 졌구나, ...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텐데 잘 대비하고 ...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스탠스 및 장병 마음 가짐은 어제 4번사항으로 하고
7월 19일 07시 20분경 (실종사고 1시간전)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	포11대대장: 어 고생이 많다 포7대대장: 아닙니다. 포11대대장: 어제 사단장님이 포3대대 가서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 (실종자)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부대가 운용돼야 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주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포병 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대대장들이 니말 안듣냐?" 이런 식으로 7여단장에게 얘기를 막 했었다, 네가 만약에 사단장님 조우하면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고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7월 19일 08시 20분경 (실종사고 1시간전)		채상병 사고
2024년 04월 22일	포7대대장	사건 책임 인식을 언론에 언급
2024년 05월 13일	임성근	일부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날날이 밝혀질 수 있도록 ..
7월 20일	윤석열	재발 방지 지시
7월 24일	박정훈 대령	포함과 예천에서 수사지휘
7월 28일 오전	박정훈 대령 -> 김계환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 예정 보고
7월 28일 10시 30분경	김계환 -> 임성근	경찰 이첩 및 대기발령 고지
7월 28일	임성근	사단장으로 책임지고 사퇴의사표명
7월 28일 오후	박정훈 대령 -> 채상병 가족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
7월 30일 10시	박정훈 대령, 김계환 -> 이종호 참모총장	수사결과 보고
7월 30일 16시 30분	박정훈 대령 -> 이종섭	수사결과 대면 보고, 김계환, 허태근, 박진희, 전하규 등 배석, 수사잘했다고 응답
7월 30일 16시 30분 이후	이종섭, 김계환	후임 해병대 1사단장 논의
7월 30일 17시 30분	김계환, 박진희 통화후 문자	박진희: 보고내용 국가 안보실에 보고 되어야 한다고 문자 보냄
7월 30일 17시 51분	김계환 국가안보실 김형래 통화	
7월30일 18시	김계환, 임기훈 국가안보실 통화	
7월 30일 18시 21분	김계환 국가안보실 김형래 통화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장	국가안보실이 요청한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 거절
7월 30일	이종섭	수사결과 결재
7월 31일 11시	윤석열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 주제, 이 회의에서 격노
7월 31일 11시 17분		임성근 사단장에게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파견, 관저대기 명령
7월 31일 11시 45분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유선전화 통화(168초, 02 800번 시작)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 김계환	박진희 보좌관 전화를 이용하여 김계환에게 전화하여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 홀딩 지시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7월 31일 12시 54분	임성근	행정관을 통해 연가 상신
7월 31일 13시 30분	이종섭	참모진의 긴급 회의 소집, 해병대 장군 참여
7월 31일 13시	해병대 사령부	14시에 예정된 언론브리핑과 국회 보고 취소
7월 31일 14시 07분	박진희관과 임기훈 대통령실 통화	
7월 31일 14시 17분	이종섭 -> 해병대 부사령관 정중범	수사결과에 배제 대상 지시

사건 일시	사건 인물 및 대화	사 건 내 용
7월 31일 15시	이종섭 -> 정중범	7월 31일 하루만 휴가처리, 8월1일부터 정상 근무
7월 31일 오후		이종섭 우스베키스탄 출장
7월 31일	유재은 법무관리관 -> 박정훈 대령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7월 31일		임성근에 대해 관저대기명령이었던 것을 휴가처리
8월 1일 07시 40분	김계환과 임성근 비화폰 통화	
8월 1일 09시 09분	김계환과 임성근 비화폰 통화	
8월 1일 10시 00분부터	김계환, 박진희 텔레그램	김계환: 직권남용 위협성 2회 언급
8월 1일 오후	임성근	오후 휴가 시작
8월 1일	이종섭	출장중에 임성근 휴가처리 여부 확인
8월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임성근의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수사단에 지시
8월 1일	김계환 -> 박정훈 대령	김계환이 신범철에게 온 사단장은 배라는 문자를 박정훈 대령에게 보여줌
8월 2일 10시경	박정훈, 김계환	수사결과 김계환에게 이첩보고 이첩 중단에 대한 직권 남용 확인
8월 2일 10시 30분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결과서 도착
8월 2일 11시 13분	김계환과 박진희 텔레그램	수사결과 이첩여부 확인
8월 2일 11시 50분		경북 경찰청에 수사자료 이첩 종료
8월 2일 12시 4분	이종섭이 김계환에게 전화통화	
8월 2일 12시 7분	윤석열과 이종섭 통화 (대통령 개인 전화)	(개인전화는 권성동 체리따봉 문자아이콘을 보낸 전화)
8월 2일 12시 28분	김계환과 박진희 텔레그램	수사결과 이첩여부 확인
8월 2일 12시 31분	김계환과 박진희 텔레그램	김계환: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드렸습니다.
8월 2일 12시 40분	공직기강비서관실 박중현	공직기강비서관실 박중현 경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 총경으로, 다시 경북경찰 수사부장(경무관)으로 이첩된 서류 회수할 것이라고 통보됨, 일반적으로 경정 7년후 경무관 승진함
8월 2일 12시 43분	윤석열과 이종섭 통화 (대통령 개인 전화)	
8월 2일 12시 45분	김계환 ->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이라고 전달
8월 2일 12시 50분	대통령실 임종득 -> 김계환 통화	
8월 2일 12시 57분	윤석열과 이종섭 통화 (대통령 개인 전화)	
8월 2일 13시 3분	김계환과 유재은 통화	
8월 2일 13시 50분	유재은과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	
8월 2일 13시	김계환과 임성근 통화	
8월 2일 13시 50분	유재은과 경찰청 간부	군검찰이 수사자료를 가져가는데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라고 함
8월 2일 14시 15분	해병대 이호중 참모총장 ->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통보
8월 2일 14시 30분	해병대 인사처장 ->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통보
8월 2일 14시 40분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군기 위반이기에 수사자료 회수의사 발령
8월 2일 15시 00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 가져 가겠다고 통보 이종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첩보류만 지시했지 회수지시는 하지 않음
8월 2일 15시 56분	김계환과 대통령실 임종득과 통화	
8월 2일 19시 20분	국방부 검찰단	수사자료 회수

사건 일시	사건 인물 및 대화	사 건 내 용
8월 2일 21시 48분	김계환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통화	
8월 2일 오후	이시원과 유재은 통화	수차례 통화
8월 3일	임성근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은 사퇴가 아니라는 해명
8월 4일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 중령에게 대해 압수수색 및 입건 그리고 추후에 기소됨
8월 8일 07시 55분		윤석열과 이종섭 통화
8월 9일	이종섭	국방부 조사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검토 지시
8월 9일		국회 국방위